

야구

4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김원중 구승민 박진형

‘제2의 손승락’ 찾아라 롯데 캠프 ‘발등에 불’

김원중·구승민·박진형 등 후보군

결국 재회는 없었다. 4년간 롯데 자이언츠의 뒷문을 지켰던 손승락(39)은 정상에 자리에서 유니폼을 벗었다. 뒷문지기 찾기가 롯데의 스프링캠프 최대 과제다 떠올랐다.

롯데는 전통적으로 마무리 투수 기근에 시달렸던 팀이다. 2012년 김사육(34세이브)이 창단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고 2009년 존 애킨스(26세이브)가 구원 타이틀 홀더에 올랐지만 리그를 지배한 인상은 심어주지 못했다.

헛거은 뒷문은 2016시즌에 앞서 프리에이전트(FA) 손승락과 4년 총액 60억 원에 계약하며 메워졌다. 손승락은 4년간 219경기에서 15승14패2홀드94세이브, 평균자책점 3.51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구단 시즌 세이브 기록을 37개로 다시 쓰며 리그 1위에 올랐다. 통산 세이브는 271개로 오승환(삼성 라이온즈·277개)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다. 손승락이 있는 4년간 롯데는 마무리투수 걱정이 없는 팀이었다.

손승락을 믿고 걱정이 없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지금 당장 대체할 자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토끼 잔류라는 명확한 방침을 세웠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부 기준대로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다. 하지만 유니폼을 벗겠다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는 선수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손승락의 은퇴 배경은 금액, 계약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구단을 통해 밝힌 것처럼 가족과 함께는 시간의 소중함을 수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기에 내릴 수 있던 결정이었다.

관건은 새로운 마무리 찾이다. 롯데는 손승락과 FA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부터 후보들을 추려둔 채 플랜B 마련에 매진했다. 지난해까지 선발 자원으로 분류했던 김원중도 마무리투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2019년 마무리투수 변신을 시도했으나 고전했던 구승민도 다시 한 번 절치부심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시즌 5세이브 5홀드를 기록한 필승조 박진형도 주요 후보다. 모두 150km를 상회하는 빠른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스토브리그 승자로 꼽히지만 여전히 속도가 많은 롯데에 또 하나의 큰 고인이 생겼다.

최익래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최익래 기자의 애리조나 스토리 | 희망이 꽃피는 나성범의 투손 캠프



NC 이호준 타격코치(왼쪽)가 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에넥스필드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투손(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올림픽·우승·ML, 다 증명할 것”

〈도쿄올림픽 메달〉 〈NC 첫 우승〉 〈ML 진출〉



NC 나성범이 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에넥스필드에 차려진 스프링캠프에서 타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나성범은 “올림픽과 메이저리그 진출 모두 내 스스로 멋진 성적을 거뒀을 때 도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투손(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평생 당할 부상 한번에 당해...건강한 시즌 목표 타격은 문제없어...주루·수비 동작 회복이 관건 예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평가 받고 싶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빅리그’에 도전할 기회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시범경기 때 부상을 당한 부상은 ‘액뎀’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복귀 후 더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나성범(31·NC 다이노스)에게 2019년은 아픔이었다. 자연히 2020년 시즌은 건강, 그리고 자신의 가치 증명이 목표였다. 올림픽 출전이나 메이저리그(ML) 진출보다 더 큰 목표다.

나성범은 지난해 5월 3일 창원 KIA 타이거즈전에서 주루 플레이 도중 오른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 부상을 당했다. 시범경기 중 내복사근 파열로 늦게 시작된 시즌은 23경기 만에 마무리됐다.

이슈움이 짙었다. 시즌 타율 0.366, OPS(출루율+장타율) 1.088로 활약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성범은 시즌을 앞두고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ML 진출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부터 ML 스카우트들이 운집했을 만큼 현지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부상은 빅리그 꿈에도 침표를 찍었다.

9일(한국시간) NC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에넥스필드에서 만난 나성범은 “야구하며 평생 당할 부상을 한번에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 안 다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마음을 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몸 상태. 나성범은 “정적인 타격은 문제가 없다. 주루나 수비처럼 갑작스럽게 스피드를 내야하는 동적인 게 문제인데, 연습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감독, 강인권 수석코치, 이호준 타격코치는 “결국 (나)성범이의 회복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성범 역시 “팀이 워낙 탄탄하다. 외부에서는 ‘우승 적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며 “다치기 전의 모습... 아니, 다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장에서 느낀 2016년 한국시리즈 4패 탈락의 아쉬움, LA에서 재활하며 지켜본 2019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탈락의 허무함을 다시 느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개막전 복귀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자연히 2019년 잠시 멈췄던 ML 도전도 다시금 욕심을 낼 법하다. 여기에 ‘꼭 뛰고 싶었던 무대’인 2020 도쿄올림픽도 있다. 하지만 나성범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물론 올림픽은 정말 가고 싶은 무대지만 2018년까지의 모습으로 도전할 수 없다. 해외 무대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받을 만큼의 몸 상태, 실력이 갖춰져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 스스로 멋진 모습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축하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성범은 이미 검증을 끝낸 KBO리그 대표 타자다. 하지만 스스로는 2018년까지의 자신을 지웠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겠다는 각오다. 나성범의 야구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시작됐다.

투손(미 애리조나주) | ing17@donga.com



이대은 김재윤 주권 전유수



손동현 정성곤 김민수 하준호

KT의 전원 필승조 이강철 구상 시즌 2

작년 최강 불펜 부상·이탈자 없어 김민수·하준호 중용·이보근 수혈

KT 위즈의 2019시즌 사상 첫 5할 승률 고지 등정을 뒤에서 받친 건 불펜이었다. 두 번째 시즌은 더욱 강해지고 다양해졌다. 구상원 모두가 전원 필승조를 그리고 있다.



KT 불펜은 지난해 후반기 46경기 이강철 감독에서 평균자책점(ERA) 2.57(리그 1위)을 합작했다. 전반기(96경기 ERA 4.85·8위)와 판판이었다. 같은 기간 리그 평균(3.84)보다 1점 이상 낮았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가 없었다.

이강철 감독이 시즌 초부터 확립했던 ‘자기 역할’을 선수들이 이해한 결과다. 선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주권은 셋업맨으로 역할을 바꿔 KT 창단 최다 홀드 기록(25개)을 썼다. ‘클로저’로 변신한 이대은도 후반기 21경기에서 불문세이브 없이 9세이브를 기록했다. 전유수는 후반기에만 30이닝을 소화했고 하준호, 김민수도 1점대 ERA로 힘을 보였다.

올해 이 감독이 꼽은 강점도 불펜이다. 불펜에서만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자신하고 있다. 전반기와 확연히 달랐던 후반기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스토브리그 기간 부상이나 이적 등 자원이 이탈이 없었다. 여기에 마당쇠 역할을 해준 이보근을 2차 드래프트로 수혈했다.

지난해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김민수도 불펜 자원으로 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만 가오슝 마무리캠프에서 가장 좋은 구위를 뽐냈던 하준호도 좌완 1음선으로 쓰일 전망이다. 기존의 김재윤, 주권, 손동현, 정성곤 등까지 감안한다면 딱히 추격조를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후반기 성적이 특정한 명에 의존한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

캠프 초반 대부분의 불펜투수의 공을 받은 장성우는 “컨디션이 정말 좋다. 불펜이 우리 팀의 최대 강점”이라며 “지금 컨디션이라면 우리도 전원 필승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박승민 투수코치 역시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리그 전체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투손(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구속과의 전쟁’ 시작한 키움 이승호

비시즌 웨이트 집중 ‘벌크업’ 성공 좋은 제구에 구속까지 갖출지 관심

“구속을 올리고 싶다고 적었네요.”

키움 히어로즈 손혁 신임 감독(47)은 지휘봉을 잡은 후 올 겨울 선수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손 감독은 이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새 시즌을 앞두고 각자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적어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선발투수로 풀시즌을 소화한 좌완 이승호(21)는 “구속 증가”를 첫 목표

로 내세웠다. 손 감독은 “이승호가 구속을 증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며 훈련 모습을 전했다.

이승호는 지난해 23경기에서 8승5패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시즌 중 봉와직업으로 제법 긴 시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있었음에도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후반기 정상적으로 돌아온 후에는 포스트 시즌까지 팀에 힘을 보냈는데, 선발은 물론 불펜으로도 맹활약하면서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키움 이승호

시즌 말미까지 많은 공을 던진 이유에서다. 피로도를 걱정한 손 감독은 직접 “천천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승호는 이에 맞춰 전력투구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중이다.

대만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호는 천천히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국제대회인 2019 세계야구 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출전해

그러나 전력투구를 제외한 다른 훈련에서는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구를 제외한 ‘몸’은 미리 준비를 시켜놓겠다는 의지다. 실제 캠프를 떠나기 전 비시즌에는 근육량을 많이 늘려 ‘벌크업’에 성공했다.

그는 “양복이 작아졌다”며 최근 커진 몸에 대해 웃으며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께서 천천히 준비하라고 배려해주신 만큼 완벽하게 몸을 만들려 한다. 아프지 않고 풀시즌을 치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구력에서는 이미 날카로움을 인정받은 이승호가 구속까지 늘려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성상 기자 award@donga.com